

김영랑 시인 '모란이 피기까지는' 창극으로 만나다

전남도립국악단, 3·1절 특집무대
3월 1일, 남도소리올림터 공연장
1940년 절필 선언 김영랑 모티브
'쌍아의 숨결' 등 국악관현악 작품도

'3·1절'은 세계만방에 우리나라 독립 의지를 알렸던 의미 있는 날이다. 매년 3월 1일이면 전국 각지에서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기 위한 행사나 공연이 펼쳐진다.

전남도립국악단(예술감독 조용안·국악단)이 3·1절을 맞아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다. 일제에 저항하기 위해 1940년 절필을 선언했던 김영랑 시인을 모티브 삼아 창극부터 국악관현악까지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이는 것.

국악단이 특집 공연 '모란이 피기까지는'을 오는 3월 1일 오후 4시 남도소리올림터 공연장에서 진행한다.

2017년 초연한 '모란이 피기까지는'은 영랑의 동명사에서 제목을 본떠 만든 창극이다. 강진 출신으로 서울 휘문고에 공부하던 중 격랑에 휩싸인 김영랑(본명 김윤식)의 청년기를 조점화한다.

창극은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무렵 강진에서 김영랑, 김안식 등이 도모했던 만세운동을 그린 작품이다. 이들이 독립선언서와 독립신문을 각각 구두 안장과 내의에 숨겨 몰래 들여왔던 장면 등이 극화된다.

3월 24일 장남로 예정됐던 1차 거사 계획이 사전 발각돼 김영랑과 양경천이 실형을 선고받는 대목도 있다. 이후 김안식을 포함한 4인방은 2차 거사를 진행하고, 영랑은 수인의 몸으로 조국광복의 염원을 담은 민족시 '모란이 피기까지는'을 창작한다.

실제 김영랑 시인은 1919년 고향에서 3·1운동



전남도립국악단이 3·1절을 맞아 특집 공연 '모란이 피기까지는'을 남도소리올림터에서 펼친다. 지난 공연 장면. <전남도립국악단 제공>

을 주도하다 검거돼, 대구형무소에서 3개월간 옥고를 치른 바 있다. 그를 비롯한 독립운동가의 투옥은 같은 해(4월 4일) 강진읍에서 최초로 벌어진 대규모 독립만세 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김윤식 역은 국악원 창작부 최윤석 상임단원이 맡는다. 윤진철에게 '심청가', '춘향가' 등을, 박성희에게 '흥보가'를 사사받은 김 단원은 제15회 보성소리축제 전국 판소리 경연에서 일반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독립운동가 양경천 역은 윤세린 단원이, 어머니 역은 박미정 단원이 열연하며 꽃거지패 역에 박정희·유민희·정주희.

이와 함께 국악단은 '쌍아의 숨결', '아름다운 나라' 등 국악관현악 작품도 연이어 선보인다.

정재일이 작곡한 '대한이 살았다'는 대한독립이 된 염원 하나로 옥사 8호실에 수감됐던 일곱 명 여성 독립투사의 노랫말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전남도립어린이국악단 단원들도 출연해 목소리를

더할 예정이다. 무용 퍼포먼스 '기억의 자살 희망의 부활'은 류형선 작곡에 정길만 안무를 거쳐 상연된다. 이어 송병관이 구성한 타악 앙상블 '도당', 삼일절을 기리기 위해 가무악희 버전으로 특별 편성한 프로그램도 관객을 만난다.

총연출을 담당할 조용안 예술감독은 '삼일절 특집 공연을 앞둔 만큼, 연습하는 내내 마음 한구석에서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끼고 있다'면서 '자유와 독립의 가치를 나누는 이번 공연이 뜻깊은 삼일절을 보내는 한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국악단은 3·1절 특집 공연 외에도 오는 29일 토요일 특집공연 신춘음악회 '희망해, 봄'을 앞두고 있다. 공연은 '강 건너 봄이 오듯', '희망의 나라로' 등 국악 관현악과 협연 무대들로 봄의 감성을 일깨운다.

전석 무료, 티켓링크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전남도립국악단 단원들이 공연을 펼치는 장면.



아시아문화박물관에서 진행된 '아시아박물관산책' 강의 장면. <ACC 제공>

동북아시아 문화와 역사

ACC '아시아박물관 산책'...광주일보 등 주최·주관

아시아문화박물관은 아시아 문화 예술을 수집·연구하며 이를 토대로 전시 등 콘텐츠를 구현한다. 일반인들이 아시아문화를 쉽게 접하고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그동안 '아시아박물관산책'을 개설해 아시아를 모티브로 각각의 다채로운 문화를 알려왔다. 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북아시아를 연구하고 그 결과물을 전시 등으로 펼쳐 온 것.

아시아문화박물관이 올해 '아시아박물관산책' 주제를 '동북아시아'로 정하고 3월부터 6월까지(겨울 수요일) 한·중·일 역사 강의를 8회(문화교육실4) 진행한다.

이번 6회째를 맞은 아시아박물관산책은 광주일보사(대표 김여송), ACC(전담장 직무대리 김상옥), (재)호남문화재단연구원(이사장 임영진), (재)아시아문화재단(이사장 김성중)이 주최·주관한다.

강의 첫 문은 3월 5일 이성주 경북대 교수가 '고대국가의 형성'을 주제로 연다.

이어 3월 19일에는 박순발 충남대 명예교수가 '도시와 성곽'을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이강래 전남대 명예교수는 '문자와 사서'(4월 2일)를, 최인선 순천대 교수는 '불교와 왕권'을 강의할 예정이다.

중세 동아시아의 해안경로를 가늠할 수 있는 강의도 진행된다. 윤용혁 공주대 명예교수는 '중세 동아시아의 바다와 뱃길'(4월 30일)을 토대로 당대의 역사와 문화, 무역 등을

회차	일자	강의주제	강사
1	3.5	고대국가의 형성	이성주
2	3.19	도시와 성곽	박순발
3	4.2	문자와 사서	이강래
4	4.16	불교와 왕권	최인선
5	4.30	중세 동아시아의 바다와 뱃길	윤용혁
6	5.7	고지도	양보경
7	5.21	한·중·일 도자산업과 근대화	방병선
8	6.4	한·중·일 장묘제도와 생사관	임영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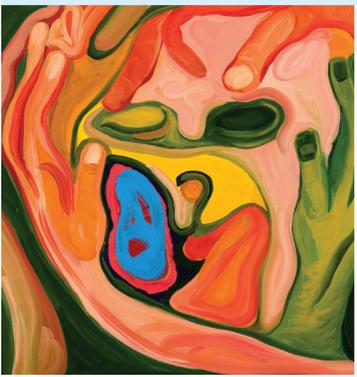
토요일 계획이다.

또한 양보경 성신여대 교수는 '고지도'(5월 7일)를 강연하며, 방병선 고려대 교수는 '한·중·일 도자 산업과 근대화'를 주제 삼아 이야기를 펼친다.

이 밖에 6월 4일은 임영진 호남문화재단연구원 이사장이 '한·중·일 장묘제도와 생사관'을 강의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무료 강의이며 참가신청은 ACC 누리집 또는 호남문화재단연구원 누리집. 김상옥 전담장 직무대리는 "그동안 아시아 박물관 산책 프로그램은 아시아와 관련 문화와 역사, 무역, 종교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시민들에게 아시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왔다"며 "이번에는 한·중·일 동북아 3국의 문화를 모티브로 각계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강연을 마련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산수아트스페이스 재개관 기념 컬러니 리 초대전...28일까지



'shape'

그동안 동시대 미술의 이슈를 전시에 담아냈던 산수미술관이 산수아트스페이스(대표 장민한)로 '문패'를 바꾸고 새단장을 했다.

미술관은 첫 전시로 컬러니 리(이승현)작가를 초청 'Organization'을 주제로 첫 초대전(오는 28일까지)을 연다. 회화 15점은 저마다 구성적, 비구상적 이미지가 결합된 작품으로 작가만의 독창적인 서사를 담고 있다.

정형화되지 않은 인체의 형상들이 주는 작가의 상상력은 사뭇 경쾌하다. 무엇보다도 절립이 없는 몸

울동적인 원색 상상의 에너지

짓은 자유로운 붓질에서 구현됐음을 알 수 있다.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면 작품 속 인물은 내면의 알 수 없는 불안과 긴장감에 묶여 있음을 느끼게 된다. 화폭 밖으로까지 전해오는 현실의 고통은 간단치 않다. 그러나 그것을 풀어내는 작가 손놀림은 유연하면서도 리듬감으로 충만하다.

조직, 기관 등을 의미하는 'Organization'은 울동적인 원색 윤곽선과 맞물려 강렬한 몰입감을 준다. 역설적인 에너지는 이 지점에서 움튼다. 윤곽 너머로 벗어나려는 인물의 내적 몸부림은 보색의 효과로 더욱 강화되며, 화려한 색감은 상상의 나래를 추동한다.

신안 출신의 작가는 현재 조선대 대학원 미학미술학과에 재학 중이다. 지난해 전남문화재단 후원 받아 서울옥션에서 출품된 7점 작품이 모두 팔려 화제가 됐다.

특히 그의 작품은 KBS의 '먹살 한번 잡히시



'Map out'

다'. '삼남매가 용감하게', SBS의 '사내맞선', ENA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 드라마 배경 작품으로 출품되기도 했다.

장민한 대표는 "컬러니 리의 그림에는 강렬한 원색, 추상적, 구상적 이미지가 적절하게 융합돼 있어 강렬한 인상을 준다"며 "관람객들이 이미지를 따라 가다 보면 작가의 서사를 이해하는 것은 물론 관객들 또한 자신들의 서사를 새롭게 재구성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로맨틱 코미디 '로망스' 핑크빛 감성 충전

광주독립영화관, 28일 시사회·배우 무대인사 행사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잘리고 갑작스레 어머니가 돌아가시며 맛집을 이어받게 된 '혜경'. 밥 먹을 시간도 없던 그녀는 자신의 옆기 동영상이 SNS에 유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최초 게시자 '현우'를 찾아가는다.

실수로 혜경의 영상을 SNS에 올린 현우는 사과 의미로 그녀 가게가 원조 맛집의 자리를 되찾도록 물심양면 도와주겠다고 한다. 두 사람은 함께 밥을 먹고 시간을 보내면서 점차 미묘한 감정을 키우게 되는데...

광주독립영화관이 '로망스' 시사회 및 배우 무대인사 행사를 오는 28일 오후 4시 30분 영화관에서 진행한다. 한만택 감독을 비롯해 문예원, 박상남, 김건호 배우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영화는 로맨틱 코미디 장르로 말랑말랑한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한다. '인랑', '근지암'을 비롯해 JTBC '리갈하이', SBS '하이ENA' 등에 출연했던 문예원이 해원 역을 소화, 30대에도 사랑에서 튼 역할을 연기한다.

작년 KBS 연기대상 남자신인상을 수상한 박상남 배우는 현우 역을 맡는다. 드라마 '성스러운 아이돌', '군검사 도베르만' 등에서 인지도를 쌓아온 박상남은 전 애인과 함께 갔던 맛집을 재방문하는 귀여운 연남 역할을 소화한다.

작품 연출은 '김복남 삼인사건의 전말', '잡곡근무' 등을 기획·제작했던 한만택 감독이 맡았으며 2023 광주영화제작지원 사업의 '광주브랜드 영화'로 최종 선정되면서 주목받은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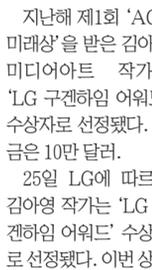


영화 '로망스'

광주독립영화관 한재섭 관장은 "맛집 도장 깨기 전문가'인 현우와 식당을 운영하던 혜경의 만남을 유쾌하고도 로맨틱하게 그려낸 작품"이라며 "로맨틱 코미디 영화로 핑크빛 감성을 충전하고 싶은 관객이라면 극장을 찾아주셔도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무료 진행(현장에서 선착순 발권).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김아영 미디어아트 작가, 'LG 구겐하임 어워드' 수상



김아영 작가

'딜리버리 댄서의 선: 인버스'. <광주일보 자료>

지난해 제1회 'ACC 미래상'을 받은 김아영 미디어아트 작가가 'LG 구겐하임 어워드' 수상자로 선정됐다. 상금은 10만 달러.

25일 LG에 따르면 김아영 작가는 'LG 구겐하임 어워드'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상은 LG가 미국 구겐하임미술관과 함께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혁신 예술가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김 작가는 인공지능(AI)과 가상현실(VR) 등을 융합한 미디어아트 작업을 하고 있으며, '딜리버리 댄서' 시리즈는 대표작이다. 코로나19 팬데믹 경험을 토대로 구현한 작품으로 미래도시를 달리는 여성 라이더를 이야기를 AI 기술로 풀어냈다.

김 작가는 "예술가가 기술을 통해 할 수 있는 일은 기술에 잠재된 가능성을 탐구하고 가장 직관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라며 "작품활동에서도 기술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술을 활용해 이야기해 나가고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올해 3회째를 맞이한 LG 구겐하임 어워드를 한

국 작가가 수상한 것은 처음이다. 김 작가는 딜리버리 댄서 시리즈를 작업해왔다.

지난해 8월 29일 김 작가는 ACC(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자간담회에서 '딜리버리 댄서의 선: 인버스'를 공개한 바 있다. 올해 2월 16일까지 ACC 복합전시관서 전시된 '딜리버리 댄서의 선: 인버스'는 11m 컴퓨터 그래픽과 3채널 영상 등 대규모 미디어가 압권인 작품이다.

한편 김 작가의 수상 축하는 오는 5월 8일 미국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열리며, 하반기에 관객에게 작품세계를 소개하는 퍼블릭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연합뉴스